

첫날 43% 육박 경선 높은 투표율...세대간 대결로 가나

국민의힘 대선 전당대회 D-3

당원 투표율 60% 이상 전망 신규당원 절반 20~40대 표심 향배 최대 변수 될 듯

국민의힘이 1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 폭발적인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투표는 4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되며 그 결과는 오는 5일 공개된다. 1·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후보(가나다 순) 4명이 '본선행 티켓' 한 장을 두고 맞붙는다. 결선 투표는 하지 않는다.

당원 투표는 1~2일 모바일 투표와 3~4일 ARS 전화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여론조사는 3~4일 이를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별도 진행된다.

본경선의 최대 변수는 '당심'(黨心)이다.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수가 지난 6·11 전당대회 당시 28만명에서 57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신규당원 표심이 경선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직전 2차 예비경선 때 투표권을 행사한 당원은 약 38만명이었다. 본경선 투표에서는 9월 말까지 입당한 신규당원이 약 19만명 추가된 것이다. 50대 이상인 기존 당내 주류와는 달리 신규당원의 절반가량은 20~40대로, 이들의 표심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두권을 다투는 윤석열·홍준표 후보가 각종 외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 접전을 벌이는 상황여서, 사실상 당원 투표에서 당락이 결정되리라 전망이 우세하다.

여론조사 방식은 선관위에서 추천한 안심번호를 사용해 무선통화 100%로 진행된다. 정확한 문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본선 경쟁력'을 기준으로 국민의힘 대권주자 4명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본선에 진출할 당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이번 본경선에서는 1, 2차 컷오프 때 달리 순위와 후보별 득표율이 모두 공개된다.

첫날 투표율도 치솟았다. 당 사무처 등에 따르면

당원 투표율은 이날 마감 1시간 전인 오후 4시 기준 약 43%로 집계됐다. 지난 2차 예비경선 때와 비교해 5% 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2차 예비경선 당시 최종 당원 투표율은 49.9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번에는 60% 선을 넘어 70% 선에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의 강한 열망이 더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당원들의 더 큰 힘을 받아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가 세대 간 대결로 흐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체제 들어 대거 입당한 2030 세대가 홍준표 의원에게, 기존 당내 주류로 꼽히는 50대 이상이 윤 전 총장에게 각각 표표를 던지며 충돌할 것이라 관측이다. 인터넷을 통해 유입된 이른바 '윤라인' 당원 중 2030 세대의 비중이 높고, 이들의 투표율이 9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50대 이상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지가 남은 변수로 꼽힌다.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를 놓고 캠프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심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체 선거인단 가운데 '20·30·



국민의힘 이준석(가운데)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회의실 배경판에는 이날부터 대선후보 선출 모바일투표가 진행되는 후보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40'이 35%, 50대 이상이 65%"라며 "젊은 신규 당원 중 윤 전 총장 지지자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홍 의원 측은 뚜렷한 민심 우위를 바탕으로 당심 대결도 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203040에서 윤 전 총장은 한 자릿수 지지율"이라며 "50대 이상에서도 홍 의원이 크게 밀리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표율이 오를수록 윤 전 총장의 본선 진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고령층까지 전후 투표에 참여했다면 뜻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수도권...홍준표, TK서 '영끌' 표발같이

유승민 국회 의원회관 지지 호소 원희룡 라디오·TV 출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투표가 1일 시작되면서 주자들도 막판 스피트를 하고 있다.

경선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각각 경기도와 대구·경북(TK)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표발같이 이어 나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캠프 경기도 선대위·당협위원장 간담회를 연 뒤 한국노동 경기지역본부로 옮겨가 '경기혁신포럼' 출범식

에 참석했다. 당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 선거인단 수는 9만4101명으로, 지역별 선거인단수 가운데 경북(9만4663명) 다음 규모다. 당원협의회 수도 권역별 최다인 58개다. 조직력을 강점으로 경기권 당심을 장악하려는 셈법이 읽힌다.

홍 의원은 대구 수성못에서 '대구·경북 국민에게 드리는 홍준표 승리를 위한 특별 기자회견'을 연 뒤 대구·경북 선대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서문 시장을 방문했다. 전통 텃밭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경선 레이스 승기를 잡겠다는 뜻이다. 대구·경북 지역 선거인단을 합하면 13만8793명으로, 전체(57만2880명)의 24.2%에 달해 당심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

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을 직접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간 공방을 "도긴개긴"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면서 "신규 가입한 약 30만명 당원들은 당협 위원장들의 '누구 찍어라'는 지시가 통하지 않는다"며 "특히 수도권 젊은 당원들께서 소신투표 할 것으로 생각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로 라디오·TV 출연 등을 통해 '원희룡'(원희룡을 찍으면 원희룡이 된다)을 홍보했다. 원 전 지사는 '원희룡을 찍으면 원희룡이 된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압승을 넘어 부패의 몸통을 압승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원희룡을 찍으면 이재명을 이긴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두환 찬양' 윤석열, 11·5 경선후 광주 방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경선 이후 광주를 방문하기로 했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후 지도부와 논의해 광주를 방문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앞서 '전두환 옹호' 논란 발원과 '개 사과' SNS에 대해 사죄하는 차원에서 TV 토론을 마친 후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총장 본인이 경선 도중이라도 거듭 사과하

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2일째 광주를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대다수 참모가 만류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주력 지지층인 50대 이상 국민의힘 당원 상당수가 앞선 두 차례 유감 표명과 사과로 충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캠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5·18 민주묘지 등을 방문했다가 반대하는 이들이 가로막혀 참배조차 하지 못할 경우 어느 정도 가라앉은 논란을 다시 부채질하면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캠프 내부에서

제기됐다. 호남의 대표적인 중진으로 최근 윤 전 총장 지지를 선언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역시 "대선 후보 확정 후 내려오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여유 있게 본선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정치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광주 방문은 당락에 상관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호남 민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떻게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쇼처럼 비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임기 중 중간평가, 과반 미만때 물러나겠다"

안철수 대권 출마 선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 잔디광장에서 '준비된 미래, 시대교체 안철수'를 주제로 대선출마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정권교체를 넘어서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 '시대교체'를 통해 새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득권에 맞선 것이 없어서 어떤 후보보다 비리에 단호할 수 있다"며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 평가를 받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22대 총선에서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



안철수 대표가 1일 '준비된 미래, 시대교체 안철수'를 주제로 대선출마 선언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주자들과의 단일화 연대가 가능성을 묻자 "저는 당선을 위해서 나왔다. 또 제가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직접 답변을 삼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전남도의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

전남도의의회는 2일 오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58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12월 15일까지 44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를 운영한다.

이 기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17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김영록 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을 들은 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아울러, 2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진권 의원이 '우주항공산업 주도적 추진 기관 신설'을, 강문성 의원이 '정부의 COP28 유치 양보 결정 유감 표명'을, 문행주 의원이 '김대중 평화회의 후속 과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150평, 200평, 500평, 950평),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